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눈꽃 아름다운 소백산 겨울 산행

지난 토요일,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옆에서 희망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버스에 올랐다. 이른 아침 6시 40분, 쌀쌀한 겨울 날씨가 두툼한 등산복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다. 오늘 산행지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이다.

관광버스 안에서 자기소개 겸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산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을 나서야 하고(근면), 산에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참 할리며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하고(정직), 함께 산을 오르는 동행자를 배려하며 오르며 내려오면서 스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다정한 인사도 나누는 열린 마음이 된다(성실), 특히 산의 정상에 오르면 오래 머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곧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하는 삶의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지혜의 상징이다. 물이 없으면 인간을 비롯해서 어떠한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다. 또한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주기도

하고 웅덩이가 있으면 고여 있기도 하고 소용돌이를 만나면 기다렸다가 흘러간다. 봄비도 되고 폭우, 홍수도 된다.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우겨대지 않고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서 마침내 평등과 자유, 생명과 진리의 바다에 닿는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이 노자(老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주장했다.

지난 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만에 산에 갔다. 비빔밥은 핑계로 미루다가 오랜만에 가는 산행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김밥과 떡 한 덩어리로 아침을 때우고 10시 30분에 충북 영동군 어곡리 매표소에 도착했다. 일부는 산 아래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일부는 소백산 등산을 시작했다. 나는 곧 나 자신의 방심과 준비 부족을 깨달아야 했다. 서울 시내에서는 눈이 거의 없고 눈이 조금 내렸다는 뉴스는 며칠 전에 보였다. 그래서 눈길이나 빙길에 발에 채워야 하는 아이젠을 안 가지고 온 것이다. 산을 조금 오르니 아직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이 등산로를 덮고 있었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나으나, 내려갈 일이 걱정되었다.

미끄럽지 않은 곳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밟으며 오르는 길은 만

만치 않았다. 중턱 좀 오르니 완전히 눈꽃 세상이었다. 일세를 모두 떨구고 맨몸, 나뭇(裸木)으로 서있는 나무 가지가 온통 새하얀 눈꽃을 피우고 있었다. 환상적인 풍경이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다른 별나라에 온 것처럼 눈꽃 세상 하늘까지도 눈꽃으로 덮인 완전한 설국(雪國)이다. 아,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조화에 경탄과 감탄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을 뿜 수 없고 눈이 아찔 정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부는 능선을 지나서 해발 1430m의 비로봉(飛鳥峰)에 올랐다. 산행 출발지 어곡리 매표소 어의곡 주차장에서 5.1km 거리를 4시간 걸어서 오후 2시 30분에 비로봉에 도착했다. 개인 사진과 단체 사진을 찍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하여 하산을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못 먹은 김밥을 천동센터에서 오후 세 시경에 점심으로 먹었다. 가지고 간 생수도 얼어붙어서 먹지 못하고 바로 출발해야 했다.

비탈진 하산길은 완전히 나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길이었다. 아직도 녹지 않은 길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발걸음 하나하나 내뒀을 때 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세를 낮추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아이젠을

챙겨서 가져 오지 못한 나의 방심과 준비 부족을 뼈아프게 뒤우쳐야 했다. 시련의 시간이다. 만약 넘어져서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큰 일이다. 미끄러져서 골절(骨折)이라도 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오직 나의 시력과 발, 정신력과 체력을 믿을 뿐이다.

산에서 내려올 때를 더 조심해야 한다. 권력의 자리에서나 우리네 삶에서 끝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하산길은 많은 교훈을 준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눈이 없는 평지 길이 나오는 비탈길, 눈길이어거러 끝날 무렵, 나는 빙판(氷板)을 덮고 있는 눈을 걷고 뒤로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백두산 보다는 낮은 소백산을 찾았지만, 아이젠을 챙기지 못한 나의 방심과 불성실을 소백산 산신령님이 사랑의 제벌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했다. 오랜만에 참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은 산행이었다.

비로봉에서 천동매표소까지 하산길 7.2km를 세 시간 걸려서 도착했다. 아침도 점심도 김밥과 떡 한 덩어리 먹으며 소백산 비로봉 12.3km 산길을 오르고 내려오는 데에 7시간이 걸렸다. 일행을 만나서 집에 오니 오후 8시였다. 몸은 무거워도 마음은 가벼웠다.

서민들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팍팍하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과 국민적 판단,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망언을 하여 시끄럽고, 김크랩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 지사가 법정구속 되어서 국회는 대립으로 식물국회가 되어 있다. '국회는 일 하는 곳이 아니고 싸우는 곳이다. 싸워서 공론화(公論化)가 되고 옳고 그름이 가려진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은 옥박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리가 있다.

社說

가구 빈곤 심화 막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 가구소득이 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하고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가구

로, 65세 미만인 경우를 일반가구(비노인가구)로 정의구분해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65~0.651)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 간 가족부양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川流不息

川流不息

▷ 뜻: 내가 흘러 쉬지 아니하니, 군자(君子)의 행동거지(行動舉止)를 말한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안전한 전통시장 화재예방법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고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일상도 '안전'이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하고 밀집된 점포에 적재된 상품,

의류, 잡화 등 인화성 물질들이 즐비하여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겨울철은 전열기 등 화기와 난방기구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재발생 요인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난방 및 전열기구 등 문어발식 코드사용 금지 ▲가스시설은 사용 후 밸브 잠그기 ▲삼출과다 진열로 소방차 통로 막지 않기 등이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화재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율적인 실천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범한 일상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유도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roles?). It includes a quote about empathy and the logo of the Korea Humanitarian Relief Foundation.